

일제연행 한인 희생자 사죄비건립 등 추모행사

강제연행된 뒤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하다 희생된 한국인들에게 일본인들이 사죄비를 세우며 추모하는 의식이 열렸다. 8월 22일 전인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고보댐 강제연행 강제노동 희생자 사죄 추도식 및 납골식 사죄비 제막식'에서 고보댐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모임 대표 후쿠마사 야스오는 사죄추도의 시를 통해 '앞으로 강제연행·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맹세하고 진심으로 사죄와 추도를 바친다'고 말했다. 고보댐 강제노동 사건은 일제강점기 일본 히로시마현 주고쿠 산지에 고보댐을 건설하면서 강제연행된 한국인들이 희생된 것을 말한다. 남동우 기자

법화경 금니사경병풍 등 묘향산 보현사에 기증

법화경 금니사경 병풍 한 점이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북한 사람로 간다. 40여 년 간 사경불사를 해 온 보명 스님(대구 동불암 주지)은 22일 법화경 금니사경 병풍 한 점과 컨테이너 2박스 분량의 식용유 구입을 위한 대부지원 성금 1천5백만 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기증했다. 보명 스님은 "말로만 남북통일을 외치지 말고 실천을 해 보자는 마음에서 1자 1념으로 사경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한해린 학생이 이양배 의정부부교도소장으로부터 표창장과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택시 1588-5532

“내안의 문제들 말끔히 씻어낸 느낌”

‘중생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소리를 보시고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시니라.’

8월 7일 서울대·포항공대·이화여대 합동 수련회가 열린 보은 법주사 법당에 있는 학생들은 얼굴만큼이나 제 각기 다

서울대·포항공대·이화여대생 법주사서 합동수련대회 가져

큰 크기의 목탁을 들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경구를 떠들며 관세음보살 염불에 푹 빠져있었다. 2시간이 훌쩍 지나서 야법당 문을 나서서 학생들의 얼굴은 한없이 맑고 그윽해 보였다. 그 중에는 소매 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는 남학생들도 있었다.

“내 안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스님 말씀대로 비우려고 애썼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조차 걷히더니 해결점이 보이더라고요.”(정은·이대 02)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많이 쉬었지만 머리 속은 오히려 깨끗해진 느낌이 들어요.”(정인지·서울대 02) 소감을 한 마디씩 던진 학생들은 권 목을 축일 새도 없이 수행을 하며 느끼고 생각한 점들을 나누기 위한 답신법회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수련대회는 5박 6일의 일정으로 새벽예불과 관세음보살 정근, 법회, 사시예불, 답신법회, 관세음보살 정근,



수련대회에서 학생들이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있다.

예불·정근 등 5박6일간 강도높은 체험

저녁예불 등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수련대회장 배성우 학생(서울대 00)은 “순간의 즐거움이 아닌 부처님 법을 수행함으로써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인 만큼 다들 수행에 열심이다”고 설명했다.

세 학교의 합동 수련대회는 이번이 4번째. 서울대 지도법사 자명 스님이 이화여대와 포항공대에 법회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교류의 물꼬가 터졌다. 하지만 수련대회를 기획하

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든 일의 주체는 학생들이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다.

“깊이 있는 수행을 하고 싶다는 법우들의 요청이 많아 수련대회 일정이 작년보다 하루 늘어났다”는 이화여대 불교학생회 회장 이보라미 학생(02) 말처럼 합동 수련대회 일정 조율 또한 학생들의 몫이다.

새내기로 처음 수련대회에 참가한 홍민선 학생(서울대 03)은 “선배들은

문제점도 해결하고 수행도 열심인데 반해 전 가족들과 친구 생각 등 밖에 일들이 자꾸 떠올라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며 “조금 더 많은 자유시간과 개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수행 방법이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애교 있는 투정을 부렸다.

개강을 요양에 두고 막바지 방학을 즐기겠다며 해외로 배낭을 메고 떠난 친구, 도서관에서 미리 새 학기를 준비하는 여학생 친구들도 많다. 하지만 부처님 품 안에서 자신을 성찰할 시간을 갖은 이들만큼 빛날 수 있을까.

보은=김은경 기자

“불우 재소자들 위해 써주세요”

한해린 어린이, 일년간 모은 돈 기탁

천진한 동심(童心)이 재소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8월 22일 수원 창릉초등학교 4학년 한해린(11) 학생이 지난 일년간 모은 용돈과 세뱃돈 일백 만원을 불우 재소자를 돕는데 써달라며 의정부 교도소에 기탁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한해린 학생은 평소 지상사 수지포교원(주지 의선) 불우

이웃 돕기 단체인 ‘부처를 닮은 사람들’에서 꾸준히 활동해오며 이웃을 향한 사랑을 키워왔다.

22일 의정부교도소에서 열린 성금 기탁식에서 한해린 학생은 “어릴 때부터 스님과 교도소 위문을 다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이양

9·11테러 2주년 기념 미 환경단체 3보1배

9·11테러 2주년을 맞는 다음달 11일 미국 콜로라도주 텔루라이드(Telluride)에서 삼보일배가 진행된다. 삼보일배와 새만금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온 미국의 환경단

체 ‘글로벌 리스펀스(Global Response)’ 기획국장 파울라 팔머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평화와 정의, 환경을 위한 미국 콜로라도주 NGO 대회’ 참석자 중 한 사람이 9·11테러 2주년을 맞는 다음달 11일 미국 콜로라도주 텔루라이드(Telluride)에서 삼보일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동우 기자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 및 사보살입상과 죽서사 괘불탱(佛幀), 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문적을 보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이 지난 20일 보물 제1378호로 지정한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은 대웅전에 봉안돼 있는 석가모니불 중심의 삼세불좌상과 일광·월광·관음·세지 보살로 추정되는 네 보살입상이 한 조를 이루는 율존불 형식이다. 쌍계사 불·보살상은 조선시대 17세기 전반 율존불 형식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



쌍계사 사보살입상.



죽서사 괘불탱.

목조삼세불좌상 등 3점 문화재청, 보물지정

보물 제1379호로 지정된 죽서사 괘불탱은 정면을 향한 입불상을 화면 전체에 가득 차도록 그리고 광배 주위로 화불과 보살상을 배치한 율존도 형식의 진채(眞彩) 괘불화다. 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문적은 선조 29년 이몽학의 난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이 5명에 불과해 회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은 수석 목조삼세불좌상 일괄 1건을 보물 지정 예고했다.

오유진 기자

석·박사 553명 배출

동국대, 후기졸업식 거행

동국대학교 200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8월 20일 열렸다.

1천여 명이 참석한 학위 수여식에서 홍기삼 총장은 “졸업 후에도 자기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불교학 관련 박사 2명과 석사 16명을 포함해 박사 66명, 석사 487명, 학사 558명, 불교대학원 38명 등 모두 1천111명이 학위를 받았다.

권형진 기자

경불련의 내홍

목탁소리 남동우 (취재1부 기자)



불교계 최초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대표 정연, 이하 경불련)이 내홍에 휩싸였다. 경불련 단위 사업장 실무자들은 8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불련이 창립된 지 10여년이 넘었지만 모든 의사 결정은 한 개인의 독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며 “경불련도 어느덧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실무자들은 또 경불련의 정체성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국인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숙인 등들의 사회적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백화점식 시민운동과 이틀 걸기식 운동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지만 실무자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운영위원회가 해산된 뒤 구성원 조직발전위원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정체성에 관해서도

“경 불 련 은 발족할 당시부터 사회단체와 불교단체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며 “경불련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적 정체성 안에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권리 옹호와 지원이 포함돼 있어, 부문 운동은 경불련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 경불련 한 관계자는 “양측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이 문제가 불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및 시식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임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백중천도시식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법회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울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더 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 [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제 2차 천삼십일기도 회향

지난 2000년 11월 5일부터 시작한 제2차 천삼십일기도가 오는 8월 31일 오전 10시 조계총림 송광사 율원장이며 부산의 두송종합사회복지관과 두송자활후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계신 부산 관음사 주지 지현대화상을 모시고 마침내 회향을 맞게 됩니다. 보다 아름다운 회향이 되도록 불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

-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